

러시아 사라토프 소식

2024 년 3 월

서영만 , 빈일숙 선교사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이사야 43:1)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꽃피는 봄날이 되었겠지요 저희들의 선교지는 아직도 겨울입니다. 우리도 따뜻한 봄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엔젤스 사랑교회는 1월 첫주부터 고려인 어르신 2명이 전도 되어 새롭게 출석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씨만 뿌렸는데 이제는 저희 교회도 사람들에게 알려 지고 소문들고 찾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올 24년도는 출발부터 은혜가 넘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3개의 지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 대 심방을 하는데 러시아 성도님들은 심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번 대 심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 굳건 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길이 많이 미끄럽고 안좋습니다.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매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동안은 저희 가정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러시아는 새해 첫 시간을 가족이 같이 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좀처럼 깨어 지지않는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한국이나 제 3국으로 떠나있기 때문에 혼자서 새해를 맞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가 또한 은혜가 넘치는 송구 영신예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한국의 고유명절 설날을 맞이해 저희 한글학교 학생들과 같이 설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한국사람이 없기때문에 저희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한국의 예절 .한복을 입는 방법 세배. 절 하는 방법들을 많이 보고 매우 기뻐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자녀가 하는 세배를 받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를 더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현지 교회리더 서 엘레나 목사님 입니다.

저희가 처음 2007년도에 사라토프에 와서 만나 같이 농장에 교회를 시작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근처 마을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성도인데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 가는 아주 열심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비엠티스키 새생명교회 목사) 자비량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시작된 두날개 양육반이 지금까지 한사람 결석 없이 잘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고 평균 나이 70세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의 성장은 아니 되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야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명씩 새로운 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삶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 열심은 내지 못하지만 나름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섬기는 3개의 지교회 부흥과 성도님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2. 서영만 선교사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3. 부족함 없는 물질의 후원과, 파송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열리게 하옵소서
5. 9인승 봉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옵소서
(70-80 세 되시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다닐수 있도록)
6. 지붕 철폐교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좋은 날씨가 되고 모든 일들이 순전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소서
7. 서영만 선교사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다시 한국에 나가 **(2024년3월 22일 부터 2개월)**예정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러) 0017- 987-808-2145 한국 010-5530-9177 서영만 선교사

수경노회 김오권 노회장님 임원분들 해외선교,전도부임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축복합니다.

2024년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이 임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러시아 사라토프 서 영만, 빈 일숙, 서 진수. 서 진우. 서 진현. 서 한나 선교사 가정 올림